

조직근접성과 신규제도의 채택 간의 관계: 지위와 적소기반 근접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정대훈(주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immaqsad2009@gmail.com)

신동엽(공저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dshin@yonsei.ac.kr)

.....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난 결과로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활성화된다. 연구자들은 조직들의 근접성이 새로운 사회적 요소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사회적 관점에서 같은 계급이나 지위를 가진 행위자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동료집단을 이루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관행이 확산된다고 본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같은 소비자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행위자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모방하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가 확산된다고 본다. 각각의 관점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근접성과 그에 준하는 거리 개념들이 제시되어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제시되어왔지만, 이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접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조직근접성을 그 유형에 따라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근접성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에 기여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두 근접성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며,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논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들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패널자료들을 실증분석한 결과 모든 가설들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근접성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신규제도 확산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공한다.

주제어: 조직근접성, 지위, 적소, 한국대학, 입학사정관

.....

1. 서론

행위자들 사이의 거리가 집단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조직연구의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여러 학제들과 이론들은 행위자들 간의 근접성(proximity)이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와 혁신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해왔다(Audretsch and Stephan, 1996; Gitellman, 2007; Nachum, Zaheer and Gross,

2008; Singh and Marx, 2013). 즉, 행위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활성화하여 성과를 개선시키고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게 된다는 것이다(Florida, 2002; Gitellman, 2007; Pouder and St. John, 1996; Whittington, Owen-Smith, and Powell, 2009).

이 같은 근접성 개념은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그 논의가 확장되어왔다. 먼저 사회적 근접성은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의 정도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행위자들이 같은 성(sex)이나 인종

(race)에 속하였는지, 또는 같은 사회계급이나 지위에 속하였는지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Phillips, Rothbard and Dumas, 2009). 이러한 사회적 근접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행위자가 자신과의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이 높은 행위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 행위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참고하거나 모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Bothner, 2003; Burt, 1987; Ho and Levesque, 2005). 한편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에서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강도를 근접성의 정도로 간주하였다. 즉,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산업이나 시장이 유사하고,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이 행위자들은 경쟁적 관점에서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근접성을 적소중복(niche overlap)이라고 부르며, 보다 많은 행위자들의 적소가 중복될수록 경쟁은 심화되고 생존율은 줄어들게 된다(Baum and Singh, 1994; Hannan and Freeman, 1977). 주목할 점은 경쟁관계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 구조와 관행 등이 확산되는 유사화(homogenization)가 일어난다는 것이다(Baum and Haveman, 1997; Deephouse, 1999) 이는 행위자가 경쟁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주목하여, 전략적으로 그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근접성 개념은 각각의 관점에서 다양한 현상들과 맥락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지만, 두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근접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재까지의 근접성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답하기 어렵다. 만약 행위자가 자신과 사회적으로 유사한 행위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

과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두 유형의 근접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며, 둘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보다 현실 세계에 가까운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실제로 행위자는 여러 행위자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요소의 수입은 복수의 경로들에 의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접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하는 신규제도 채택모형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산업에서의 신규제도 채택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이 그 채택 의사결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의한 다음,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이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조직이 자신과 사회적 지위가 유사한 동료조직들과, 활동영역이 겹치는 경쟁조직들의 영향을 받아 신규제도를 채택할 것이라 예측한다. 각각의 영향이 증가할수록 조직은 다른 성격의 경쟁논리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정당성 확보가 핵심인 지위경쟁 논리와 수요의 적절한 대응이 핵심인 시장경쟁 논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직이 두 유형의 경쟁논리들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보다 지배적인 경쟁논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 보는데, 이는 조직의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정보처리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에 있어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은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

의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들의 입학사정관계 채택에 대한 8년간의 중단자료를 실증 분석하였고, 모든 가설들이 강하게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는 추가분석들과 그 해석, 그리고 본 연구의 기여점과 한계점들이 논의되었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2.1 조직근접성의 개념과 연구흐름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조직들이 대면 의사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이 가능한 같은 공간에 존재할 때, 이 조직들은 서로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Monge, Rothman, Eisenberg, Miller and Kirste, 1985). 선행연구들은 근접한 조직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과 지식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과와 혁신성, 네트워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Gitellman, 2007; Monge et al., 1985; Nachum, Zaheer and Gross, 2008; Wittington, Owen-Smith and Powell, 2009).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가까운 조직들은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따르는 불확실성이나 인지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Funk, 2014). 또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조직들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 조직들 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Owen-Smith and Powell, 2004; Saxenian, 1996). 미국 실리콘밸리는 이러한 조직

근접성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 지역 내 벤처기업, 대학, 투자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실리콘밸리 특유의 협력 네트워크를 일으켰으며, 이 네트워크에 의해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촉진되고 기술개발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Saxenian, 1991). 이외에도 호주 시드니 호텔산업에서 나타나는 강도 높은 협력관계라든지(Ingram and Roberts, 2000), 미국 보스턴 생명공학산업의 지식 네트워크의 존재(Owen-Smith and Powell, 2004) 등 근접한 조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상호작용의 예시들이 제시되어왔다.

조직이론에서는 이러한 조직근접성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 먼저 사회네트워크이론(social network theory)과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on theory)은 사회적 근접성을 강조하였는데, 조직은 자신과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조직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이 조직들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othner, 2003; Ho and Levesque, 2005). 조직은 자신과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가 비슷하거나 같은 범주(category)로 분류되는 조직들의 행동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Briscoe, Gupta and Anner, 2015). 특히 조직의 목표수립과 바람직한 행동의 설정은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동료조직들의 그것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Lawrence, 2006; Phillips, Rothbard and Dumas, 2009). 다음으로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은 특정 조직군(population)이 생존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다차원적 자원공간(multidimensional resource space)인 적소(niche)를 강조하였다(Hannan and Freeman, 1977). 조직들은 저마다 고유의 자원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원공간들이 서로

겹치는 것을 적소중복이라고 한다(Baum and Singh, 1994). 두 조직들의 적소가 겹치는 정도가 클수록 이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적소에서 활동 중인 조직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은 보다 심화된다(Wholey and Huonker, 1993). 이 관점에서 적소중복의 정도는 조직들 간 생태학적 근접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직과 생태학적 근접성이 높은 조직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 조직의 생존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조직근접성은 크게 두 가지 연구흐름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해왔는데, 첫 번째 연구흐름은 성과와 생존율, 혁신성과 같은 집단이나 조직수준의 다양한 결과물들의 선행요인으로서 조직근접성에 주목하는 것이다(Baum and Singh, 1994; Funk, 2014; Gittelman, 2007; Whittington, Owen-Smith and Powell, 2009). 두 번째 연구흐름은 기술이나 제도, 관행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소들의 확산을 설명하는 핵심요인으로서 조직근접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Bothner, 2003; Lieberman and Asaba, 2006; Singh and Marx, 2013). 본 연구는 이 중 두 번째 연구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제도의 확산을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역할에 주목한다.

2.2 사회적 근접성과 신규제도 채택

프렌드십(friendship)을 가진 행위자들이 서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동질성 논의는 여러 이론들에서 다루어져왔다(McPherson and Smith-Lovin, 1987). 먼저 사회네트워크이론은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Burt, 1987; Granovetter, 1985; Uzzi, 1996). 특히 Burt(1987)의 응집모형(cohesion

model)에 따르면, 행위자들 사이에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있을수록 한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행위자의 같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즉, 조직들 사이에 규범적 이해(normative understanding)가 공유될 때 조직은 자신과 사회적으로 유사한 다른 조직들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urt, 1987). 한편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자가 동료조직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Briscoe, Gupta and Anner, 2015). 즉, 관찰대상과 행위자 사이의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때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이 일어나게 되고, 조직은 이러한 학습의 결과로 유사한 제도나 관행을 받아들이거나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정대훈 · 신동엽, 2016; Bingham and Davis, 2012; Srinivasan, Haunschild and Grewal, 2007).

반면 사회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조직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데, 이는 두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비대칭적일 때 각각의 행위자는 자신의 정보나 의사를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hillips, Rothbard and Dumas, 2009). 실제로 행위자들은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과 유사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행위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incoln and Miller, 1979; McPherson and Smith-Lovin, 1987). 이러한 현상은 조직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기업은 제휴관계나 파트너십을 맺을 때 자신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기업들을 선호하지만(Chung, Singh

and Lee, 2000; Podolny, 1994), 기업 간의 지위 격차가 클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hattacharya and Dugar, 2014). 따라서 조직은 사회적 이질성이 높은 조직들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빈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행위자들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가 사회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일어난다는 논의는 지위기반모형(status-based model)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지위기반모형에서는 조직들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국지화되어 일어날 것이라 본다. 만약 높은 지위를 가진 행위자가 낮은 지위를 가진 행위자와 상호작용한다면 이는 높은 지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행위자들과만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Park and Podolny, 2000). 이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지위 간의 격차가 큰 조직들 사이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사회적 지위 수준이 비슷한 조직들 사이에서는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난 결과 신규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조직들은 공감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로 공동의 규범과 관점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요소에 대한 공유된 반응들을 이끌어낸다. 또한 조직은 자신과 사회적으로 유사한 조직들의 의사결정을 참고하고 모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직은 이질적인 조직들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지위 수준을 가진 동질적인 조직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이전과 확산은 사회적 근접성이 높은 조직들

사이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초점 조직과 사회적 근접성이 높은 조직들 중 더 많은 조직들이 신규제도를 받아들일수록, 초점조직 또한 이 제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 논의는 다음의 가설 1로 요약할 수 있다.

가설 1: 초점조직과 사회적으로 근접한 조직들 중 신규제도를 채택한 조직들이 증가할수록 초점조직이 이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2.3 생태학적 근접성과 신규제도 채택

적소중복은 두 조직 간 유사성 정도를 반영하는 관계적 특성(Wholey and Huonker, 1993)으로서, 조직생태학은 같은 산업 내에서도 이 같이 적소가 겹치는 조직들 사이에서 보다 심화된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Baum and Singh, 1994; Lieberman and Asaba, 2006). 즉, 특정한 자원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는가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Hannan and Freeman, 1977). 이 관점에서 Baum and Singh(1994)은 조직군 전체에서의 밀도는 새로운 조직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을 높이기 때문에 조직의 설립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소중복의 밀도는 경쟁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설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이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조직들이 서로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가 동종의 경쟁조직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유사화(homogenizat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Baum and Haveman, 1997; Deephouse, 1999). 조직은 경쟁자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거나 또는 차별

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만약 차별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는 경쟁자들로부터 모방가능성을 줄이고 조직의 경쟁우위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위험부담이 크다. 무엇보다도 어떤 차별화 전략이 미래에 성공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직은 차별화보다는 유사전략(homogeneous strategies)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Lieberman and Asaba, 2006). 또한 경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성과를 개선한다면 조직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기술적 간극을 메꾸기 위해 조직이 지불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Bothner, 2003). 따라서 조직은 자신과 같은 자원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쟁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와 유사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신규제도의 확산은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조직들 사이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의 강도가 높을수록 조직이 유사전략을 추구할 동기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몇몇 조직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다른 경쟁조직들의 적극적인 모방을 일으켜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은 자신과 적소중복의 정도가 높은 경쟁조직들의 의사결정에 의존할 것이다. 만약 적은 수의 경쟁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인 상태라면 조직이 유사전략을 사용할 동기는 크지 않다. 그러나 보다 이 제도를 채택한 경쟁자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조직이 유사전략을 사용할 동기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가설 2로 정리할 수 있다.

가설 2: 초점조직과 생태학적으로 근접한 조직들 중 신규제도를 채택한 조직들이 증가할수록 초점조직이 이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2.4 두 조직근접성들의 상호작용 효과

조직의 실제 의사결정은 두 유형의 조직근접성들로부터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내려질 것이다. 본 연구는 Park and Podolny(2000)가 제시한 국지화된 경쟁모형(localized competition model)의 관점에서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이 경쟁모형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지위수준에 따라 수직적으로 국지화된 경쟁을 벌이며, 적소의 폭에 따라 수평적으로 국지화된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본다. 즉,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수평적 경쟁(적소)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 경쟁(지위)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이다(Park and Podolny, 2000). 이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은 참여하고 있는 수직적 경쟁(사회적 근접성)과 수평적 경쟁(생태학적 근접성) 각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유형의 조직근접성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논의하기 전에, 각각의 조직근접성에 기반한 경쟁이 갖는 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근접한 조직들 사이에서 신규제도가 폭넓게 받아들여지면 이 제도는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 때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직은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이 자신의 사회적 동료조직들의 의사결정을 따라갈 때는 화합감(cohesion)과 결속감(solidarity)을 누릴 수 있

지만(Ho and Levesque, 2005),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규범을 벗어나는 일탈적 행위로 간주되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Bitektine and Haack, 2015; Devinney, 2009). 정당성의 상실은 조직의 평판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Bitektine and Haack, 2015; Meyer and Rowan, 1977), 새로운 제도가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조직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될 때 조직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사회적 정당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정당성의 확보는 조직들이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경쟁은 주로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조직들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조직은 능동적으로는 평판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수동적으로는 제도화된 관행이나 사회규범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Graffin, Bundy, Porac, Wade and Quinn, 2013; Rindova, Williamson, Petkova and Sever, 2005; Shipilov and Li, 2008).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근접한 조직들 사이에서는 '지위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 조직은 이 경쟁에서 뒤쳐져 사회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위경쟁의 특성은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등한시하거나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경우 이는 기업의 평판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rishnan and Kozhikode, 2015; Sullivan, Haunschild and Page, 2007; Wang, Tong, Takeuchi and George, 2016). 또한 스캔들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 비영리조직들

의 사회적 지위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Graffin et al., 2013; Piazza and Jourdan, 2017). 따라서 사회적 지위수준이 비슷한 조직들 사이에서 새로운 제도가 확산될 때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조직이 지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생태학적으로 근접한 조직들의 경쟁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관행의 확산을 일으키는 핵심동인이 된다. 이들의 경쟁은 시장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며,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조직은 자신과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이들이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와 유사한 제품을 제공해야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형태의 '시장경쟁'에서 조직이 뒤처진다면 성과가 악화되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자는 활동영역이 겹치는 경쟁조직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경쟁에 의한 동형화 현상은 다양한 산업맥락에서 검증되어왔다. 가령 자동차산업의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을 때 경쟁자들의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며(Garcia-Pont and Nohria, 2002), 은행들은 경쟁자들과 유사한 구성의 금융제품들을 제공하게 된다(Deephouse, 1999). 이 현상은 일반적인 산업부문이 아닌 비영리적 성격의 공공의료부문에서도 나타나는데, Baum과 동료들(2000)의 연구는 양로원의 위치선정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비슷한 규모의 경쟁자들의 위치가 고려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Baum, Li and Usher, 2000). 결국 조직이 경쟁자들의 전략과 기술, 제도와 관행 등을 모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이 어떤 조직근접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느냐에 따라 다른 특성의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근접한 조직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조직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범에 순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생태학적으로 근접한 조직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조직은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사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조직이 두 조직근접성들로부터의 영향을 모두 받을 경우 지위경쟁과 시장경쟁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이 이 둘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본다. 조직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들의 행동을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만약 조직이 지위경쟁과 시장경쟁을 모두 고려한다면 조직은 동료조직들과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동시에, 경쟁조직들과 시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야만 한다. 하지만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정보처리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이론에서는 조직이 가진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복수의 문제들에 대한 동등한 관심(attention)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Cyert and March, 1963; Ocasio, 1997). 즉,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 조직은 이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우선시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순차적 관심(sequential attention)을 통해 순해결

(quasi-resolution)을 추구한다는 것이다(Cyert and March, 1963; Greve, 2008). 이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은 공존하기 어렵다. 가령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조직은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인데, 이는 조직이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조직들과의 지위경쟁에 주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자원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조직은 같은 자원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쟁조직들과의 시장경쟁에 주목하여 유사전략을 실행하는데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력 사이에는 경쟁적인 관계성(competing relationship)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조직근접성이 다른 경쟁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조직이 관찰해야 할 대상과 수집해야 할 정보가 이질적이며 경쟁의 목적 또한 다르다. 또한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시간,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는 조직이 두 유형의 조직근접성들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들을 모두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조직은 자신에게 강하게 주어지는 조직근접성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만약 두 조직근접성들 중 한 쪽의 영향이 강하게 주어지고 다른 한 쪽의 영향이 약하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조직은 강하게 주어지는 조직근접성의 영향을 보다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조직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음, 약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근접성을 고려하는 순차적 관심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이 어떤 조직근접성을 고려하여 신규제도를 채택하는 정도는 다른

조직근접성의 영향이 약할수록 강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이 모두 강하게 주어진다면, 조직의 관심은 집중되지 못하고 각각의 조직근접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각각의 조직근접성에 기반한 경쟁논리들이 조직 내부에서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조직의 인지능력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이 어떤 조직근접성의 영향을 받아 신규제도를 채택하는지의 정도는 다른 조직근접성의 영향이 증가할수록 약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가설 3으로 요약된다.

가설 3: 초점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에 대한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은 상호 간에 음(-)의 관계성을 가질 것이다. 즉, 초점조직이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생태학적 근접성(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이 약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반대로 초점조직이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생태학적 근접성(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이 강할수록 약화될 것이다.

III. 방법론

3.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 연구대상은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들이다. 국내에서는 1946년 첫 종합대학교가 설립

된 이후, 2017년인 현재 약 200개의 종합대학교들이 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내 대학들이 준시장(quasi-market)에 존재하는 특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으로 간주되지만, 국내에서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대학들이 기업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강치원, 1999; 이동연, 2015). 가령 교수평가제와 성과연봉제가 대학들에게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들 간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들이 제시하는 가치나 비전이 기업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이 학문과 지성의 요람이라는 기존 사회적 인식이 취업과 실용적 지식의 생산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의해 도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 대학들이 비영리영역에서 시장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상아탑 경쟁'이라 부를 수 있는 대학들 간의 지위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수험생들과 기업들과 같은 이질적인 소비자집단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는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 대학들은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입학사정관제에 내재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논리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는 2004년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서 최초로 논의가 시작되어, 기존의 획일적인 입시제도의 다양화·특성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선발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주희정, 2014). 입학사정관제가 정부의 독점적인

정책 거버넌스에 의해 도입된 것은 분명하지만(신현석, 2013; 장덕호, 2009),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는 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여러 사회제도 등에 영향을 미쳐온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을 받은 제도이다. 신자유주의화는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여 시장경쟁원리를 교육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학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강치원, 1999). 교수평가제와 연봉제, 대학이사회제 등이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도입된 제도들이며, 입학사정관제 역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의 흐름 속에서 도입된 입시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외관상 정부의 독점적인 역할이 두드러지지만, 사실상 그 기저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제도적 논리가 정부와 대학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신자유주의 논리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확산되는 것은 곧 대학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논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는 대학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제도가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논리가 강화될수록 입학사정관제의 채택은 보다 정당화되고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져,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대학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 압력은 바로 정당성을 잃을 수 있으며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논리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채택 메커니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은 본 연구의 논의들을 검증하기 적절한 실증맥락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점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사회적으로 근접한 동료대학들의 의사결정과 생

태학적으로 근접한 경쟁대학들의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부터 10개의 대학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2013년에 정부지원사업이 종료된 후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자료는 주로 대학알리미에 공개되어 있는 대학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되었으며, 이외에도 대학교육협의회에 공개된 입학사정관제 현황자료, 중앙일보 대학평가자료 등이 수집되었다. 대학별 기초자료에 결측치(missing data)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대학신문에서 발간한 연도별 대학연감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46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3.2 측정방법

3.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이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국내 대학들에 도입된 입학사정관 제도의 채택여부를 종속변수로 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개별 대학의 연도별 입학사정관제 채택여부를 파악한 후 이를 0과 1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3.2.2 독립변수

1) 사회적 근접성

본 연구는 초점조직이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수준을 가진 조직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본다. 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점조직의 지

위를 파악하고 어떤 조직들을 같은 지위집단으로 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지위 개념은 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보나치치(Bonacich)의 힘 중심성(power centrality) 측정법이 사용되어왔다(Bothner, 2012; Podolny, 1993; Shipilov and Li, 2008). 또한 사회적 유사성은 주로 두 행위자가 동일한 연결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으로 측정되어왔다(Bothner, 2003; Burt, 1976; Shipilov and Li, 2008). 하지만 이 같은 측정법들은 조직들 사이에 동일한 수준의 의미 있는 관계가 얼마나 나타났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지위의 측정법으로서 사회인지적 관점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조직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존재로서 인식되고 평가되는지를 반영하는 다양한 질적 자료들이 지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Zhao and Zhou, 2011; Graffin et al., 2013; Kim, Shin and Jeong, 2016; Rindova et al., 2005). 최근의 이러한 연구흐름은 조직지위를 단순히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여 지위의 '힘(power)' 측면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측정법과는 달리, 이론에 보다 적합한 실증맥락에서 지위의 '존경(deference)'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실증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Chen, Peterson, Phillips, Podolny and Ridgeway, 2012).

따라서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직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고, 그 지위를 기준으로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동료집단을 규명한 다음, 이들 중 신규제도를 채택한 비율로서 사회적 근접성에 따른 채택압력을 측정한다. 행위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그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직적 위치를 말하며(Lounsberry, 2002), 위계를 갖는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들 사이에는 지위순서(status-order)가 나타난다(Chen et al., 2012). 즉, 어떤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실증맥락에서 이러한 지위를 잘 반영하는 변수로서 대학순위에 주목한다. 외부의 평가자들은 대학의 성과나 업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회평판이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순위로 공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대학순위는 1994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이다. 이 순위에는 교육여건,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도라는 크게 4가지 범주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어떤 대학의 순위가 더 높은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순위에는 단순한 성과나 시설만이 아닌 평판과 사회적 인지도와 같은 무형자산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평가순위는 조직지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평가순위가 비슷한 대학들을 동료집단으로 간주할 것이라 보고, 초점대학의 순위를 기준으로 ± 5 의 범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가진 대학들을 찾아내었다. 하지만 이 범위 설정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 3 과 ± 7 의 범위를 설정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동료집단에서 단순히 채택자들의 수를 측정하여 변수를 구성하는 것은 비채택자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초점대학의 동료집단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t-1기에 채택한 대학들의 비율을 측정하여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을 변수화하였다.

2) 생태학적 근접성

적소는 조직이 활동하는 다차원적 자원공간을 의미한다(Hannan and Freeman, 1977). 이 관점에서 대학의 적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시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류시장 (upstream market)에서는 고등학교들과 수험생들이 주요한 이해관계자이자 소비자로서 역할하며, 대학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각종 입학전형과 개설된 전공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하류시장 (downstream market)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사회와 기업이며, 이 시장에서 대학들은 인적자원과 전문지식 등을 아웃풋으로 제공한다. 대학의 적소는 이 두 유형의 시장 모두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배경이 대학들의 입학제도 채택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상류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적소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대학이 개설한 전공을 적소로 보고, 초점대학이 개설한 전공들과 같은 전공들을 개설한 대학들을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경쟁조직들로 규명한다. 먼저 모든 대학들의 전공들을 종류별로 파악하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전공코드에 따라 총 97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이 분류를 기준으로 초점조직과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대학들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였다. 즉, 적소중복이 어느 정도로 일어날 때 의미 있는 경쟁관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몇몇의 전공들이 있는데, 예컨대 ‘경영학’과 ‘행정학’, ‘공학’ 등은 거의 모든 4년제 대학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이다. 따라서 초점대학을 기준으로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경쟁대학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적소중복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초점대학이 개설한 전공들과 100%로 일치하는 전공들을 가진 대학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90%와 80%를 적용하였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70%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부터 초점대학과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경쟁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유효값을 갖는

적소중복의 최대비율을 적용하여 초점대학의 경쟁대학들을 규명하였다. 적소중복 비율이 더 낮아질수록 초점조직은 더 많은 대학들을 경쟁상대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50%미만의 적소중복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전공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는 적소중복의 최대 비율인 70%가 적용된 변수가 투입되지만, 추가분석에서는 50%와 60%를 적용한 변수들이 투입된 분석결과도 보고된다.

구체적인 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전공의 종류를 m_k 로 정의할 때($k=1, \dots, 97$), 대학 i 의 적소폭은 다음과 같은 식(1)로 측정할 수 있다.

$$\text{대학 } i \text{의 적소폭} = \sum_k m_{i,k} \dots\dots\dots \text{식(1)}$$

대학이 해당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 $m_{i,k}$ 의 값은 1이 되고 없으면 0이 된다. 만약 $m_{i,k}$ 의 값이 97에 가까울수록 일반조직(generalist)이라고 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특수조직(specialist)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들 간의 적소중복이 비대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Wholey and Huonker, 1993), 초점대학을 기준으로 적소중복을 측정한다. 식(2)는 대학 i 를 기준으로 대학 j 와의 적소중복의 정도를 측정한다.

$$\begin{aligned} &\text{대학 } i \text{와 대학 } j \text{의 적소중복} \\ &= \frac{\sum_k (m_{i,k} \cdot m_{j,k})}{\sum_k m_{i,k}} \times 100 \dots\dots\dots \text{식(2)} \end{aligned}$$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70%이상의 적소중복이 일어나는 대학들을 경쟁상대로 보기 때문에,

초점대학 i 를 기준으로 공식(2)의 값이 70이상인 대학들을 찾아낸 다음, 이들 중 입학사정관제의 채택자들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대학마다 적소중복의 값이 70이상인 경쟁대학들의 수가 다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단순히 채택자들의 수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모든 대학들을 기준으로 수행하여 각각의 적소중복값과 그 채택비율을 측정한다.

3.2.3 통제변수

1) 지역대학들의 영향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정보와 지식의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찰 가능성이 높고 비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Funk, 2014). 이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인접한 다른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을 관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물리적 거리에 의한 잠재적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대학들의 위치를 행정구역에 따라 모두 16가지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초점대학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 중 $t-1$ 기에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한 대학들의 비율을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대학규모

규모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특성이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Hannan and Freeman, 1984),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Audia and Greve,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규모가 신규제도 채택에 미칠 수 있

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대학의 재학생 수를 측정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원자료에서 편향된 분포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그변환된 값을 투입하였다.

3) 대학연령

연령 역시 기본적인 조직특성으로서, 조직이론에서는 신생의 취약성(liability of newness) 또는 노후화의 취약성(liability of obsolescence)과 같은 논의들을 제시해왔다(Freeman, Carroll and Hannan, 1983; Henderson, 1999). 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연령이 조직경험(organizational experience)과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제도 채택이라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많은 경험을 가진 조직은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조건은 경험이 많은 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연령의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분석연도에서 개별대학의 설립연도를 차감한 값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4) 대학순위

조직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속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Chen et al., 2012). 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에 대해 갖는 사회적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조직의 경우, 강한 멤버십과 사회적 자신감으로 인해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Phillips and Zuckerman, 2001), 동시에 언론과 제도적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표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Graffin et al., 2013). 이러한 가능성들

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조직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신규제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위가 대학평가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공개된 대학별 순위점수를 측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5) 국공립대학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추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주희정, 2014), 국공립 대학들은 사립대학들에 비해 보다 강한 채택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들을 1로, 사립대학들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6) 재정의존도

조직이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 자원이 많을수록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에서는 행위자들 사이의 비대칭적인 교환관계가 권력의 집중을 낳을 것이라 본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조직이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권고를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Salancik and Pfeffer, 1978).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입학사정관제가 정부의 주도하에 도입된 것을 상기할 때,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규모가 클수록 이 관행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정부의존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 대학의 예산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7) 채택대학들의 비율

본 연구에서는 초점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근접한 채택대학들의 영향과 생태학적으로 근접한

채택대학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근접성과는 관계없이 채택대학들의 수가 초점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즉, 단순한 수의 증가에 따른 밴드웨곤효과(bandwagon effect)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Abrahamson and Rosenkopf, 1990).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 대학들 중에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한 대학들의 비율을 연도별로 측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8) 전체 대학들의 수

전체 조직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곧 개별조직의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Baum and Singh, 1994). 이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별대학은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입학제도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지원자들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 본다. 즉, 전체 대학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할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도별 국내 4년제 대학들의 수를 측정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9) 전체 수험생의 수

위와는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경쟁은 다소 완화되고, 조직들은 낙관적 기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경우, 전체 수험생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대학들은 경쟁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기존 입학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도별 전체 수험생들의 수를 측정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10) 지역 더미

지역별 채택자들의 수와는 별개로, 지역적 영향을 받아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가령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사정관제의 채택을 지역대학들에게 권고한다면, 이는 일종의 강압적 동형화를 일으켜 입학사정관제의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6개 지역들에 대한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지역별 영향을 통제하였다.

11) 연도 더미

특정 기간의 사회·정책적인 동인에 의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받아들여야 할 압력이 더욱 강하게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특정 기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였다.

3.3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은 식(3)으로 요약할 수 있다. $A_{i,t}$ 는 t 기 대학 i 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을 의미하고, β_i 과 β_t 는 대학 i 의 특성들과 시간변수들의 효과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G_{i,t-1}$ 은 $t-1$ 기 대학 i 의 지역별 영향을, $A_{p,t-1}$ 은 $t-1$ 기 전체 채택 대학들의 영향을 의미한다. $NU_{p,t-1}$ 과 $NS_{p,t-1}$ 은 각각 $t-1$ 기 전체 대학들의 수와 수험생들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인 $SA_{i,t-1}$ 와 $EA_{i,t-1}$ 는 각각 $t-1$ 기 대학 i 와 사회적으로 근접한 채택자들의 영향과 생태학적으로 근접한 채택자들의 영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begin{aligned}
 A_{i,t} = & \beta_i + \beta_t + \beta_1 G_{i,t-1} + \beta_2 A_{p,t-1} + \beta_3 NU_{p,t-1} \\
 & + \beta_4 NS_{p,t-1} + \beta_5 SA_{i,t-1} + \beta_6 EA_{i,t-1} \\
 & + \beta_7 SA_{i,t-1} EA_{i,t-1} + \epsilon_{i,t} \dots\dots\dots (식3)
 \end{aligned}$$

본 연구는 행위자들 간의 차이들이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무선모형(random effect)의 프로빗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 relationship)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들에 1년의 시간차(time lag)을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Duncan, Magnuson and Ludwig, 2004).

3.4 주분석 결과

<표 1>은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여러 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나, 변량중폭요인(VIF)이 5미만의 값이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프로빗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모형 1]은 통제변수들이 투입된 기본모형이며, [모형 2]는 가설 1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근접성' 변수가 투입되었다. [모형 3]에서는 가설 2의 독립변수인 '생태학적 근접성' 변수가 투입되었고, [모형4]에서는 두 독립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모형 5]는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상호작용 변수가 투입된 최종모형이다.

[모형 1]에 투입된 통제변수들 중 몇몇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모든 모형에서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연령'과 '재정의존도', 그리고 '지역 채택대학 수'이다. 오래된 조직일수록 신규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그러한 조직들이 관련된 경험들과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보유

〈표 1〉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입학사정관제 채택	0.47	0.50	1.00											
2	전체 채택대학 비율	0.09	0.08	-0.05	1.00										
3	전체 대학 수	180.85	5.64	0.22 **	-0.71 **	1.00									
4	전체 수험생 수	356212.20	10992.39	0.22 **	-0.65 **	0.96 **	1.00								
5	국공립대학	0.17	0.37	0.19 **	-0.02	0.02	0.02	1.00							
6	대학연령	22.34	14.21	0.46 **	-0.05	0.09 **	0.08 **	0.16 **	1.00						
7	대학규모(로그)	8.33	1.39	0.54 **	-0.03	0.03	0.03	0.18 **	0.64 **	1.00					
8	재정의존도	0.12	1.01	0.08 **	-0.04	0.04	0.04	0.15 **	0.00	-0.04	1.00				
9	대학순위점수	53.64	30.73	0.48 **	-0.07 **	0.09 **	0.08 **	0.25 **	0.73 **	0.49 **	0.13 **	1.00			
10	지역 채택대학 수	0.44	0.27	0.43 **	-0.20 **	0.57 **	0.63 **	0.00	0.22 **	0.21 **	0.00	0.23 **	1.00		
11	사회적 근접성	0.44	0.37	0.63 **	-0.15 **	0.42 **	0.47 **	0.26 **	0.55 **	0.48 **	0.11 **	0.67 **	0.57 **	1.00	
12	생태학적 근접성	0.72	0.29	0.43 **	-0.14 **	0.65 **	0.72 **	0.72 **	0.29 **	0.31 **	0.04	0.23 **	0.71 **	0.66 **	1.00

주) N = 1246; *p < .05, **p < .01.

〈표 2〉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프로빗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채택대학 비율	5.863*** (1.415)	3.680* (1.502)	-2.127 (2.241)	-3.383 (2.286)	-4.065 (2.336)
전체 대학 수	0.103 (0.074)	0.013 (0.078)	-0.084 (0.087)	-0.149 (0.091)	-0.140 (0.091)
전체 수험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공립대학	0.045 (0.428)	-0.057 (0.432)	0.004 (0.470)	-0.102 (0.469)	-0.110 (0.479)
대학연령	0.056** (0.018)	0.060*** (0.018)	0.052** (0.019)	0.056** (0.019)	0.055** (0.019)
대학규모(로그)	0.411*** (0.123)	0.378** (0.123)	0.239 (0.140)	0.228 (0.138)	0.297* (0.144)
재정의존도	6.815** (2.443)	7.628** (2.504)	7.221** (2.643)	8.040** (2.694)	8.621** (2.756)
대학순위점수	0.027** (0.008)	-0.002 (0.010)	0.026** (0.009)	-0.001 (0.011)	-0.005 (0.011)
지역 채택대학 수	2.613*** (0.590)	2.215*** (0.601)	1.816** (0.634)	1.548* (0.638)	1.398* (0.646)
사회적 근접성		1.953*** (0.451)		1.797*** (0.471)	4.715*** (1.348)
생태학적 근접성			3.854*** (0.863)	3.463*** (0.867)	3.889*** (0.901)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					-3.412* (1.468)
상수	-20.393* (9.040)	4.169 (10.677)	29.903* (14.448)	47.884** (15.515)	46.372** (15.607)
Log-Likelihood	-371.81	-362.07	-359.01	-351.52	-348.78
관측치	1,260	1,260	1,246	1,246	1,246

주) 연도·지역더미는 생략됨, *p < .05, **p < .01, ***p < .001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조직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신규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원의존 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채택대학들이 증가할수록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조직들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신규제도의 확산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각각 투입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종속변수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독립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된

[모형 4]에서도 같은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조직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동료조직들과 동일한 자원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쟁조직들이 신규제도를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본 연구의 논의들이 입증된 것이다.

[모형 5]에서는 두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어 음(-)의 계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이는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이 상호 간에 경쟁적인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이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을 받아 신규제도를 채택하는 정도는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이 적을수록 강화되고, 반대로 조직이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받아 신규제도를 채택하는 정도는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이 적을수록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이 모두 강할 경우, 조직이 각각의 조직근접성의 영향을 받아 신규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3.5 강건성 분석결과

3.5.1 사건사분석

본 연구는 프로빗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가설들을 검증하였으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할 수도 있다. 사건사분석은 조직의 사멸률이나 인수합병, 특정 관행이나 제도의 채택과 같은 이분형(binary) 종속변수를 검증하는 분석법이다. 일반적으로 사건사분석은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가정에 따라 연속(continuous) 모형과 이산(discrete)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Tuma and Hannan, 1984). 만약 사건의 발생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연속모형이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산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Box-Steffensmeier and Jones, 2004). 연속모형은 주어진 기간 내에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서도 사건의 실제 발생이 다른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산모형 사건사분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채택 역시 1년의 기간 내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이산모형 사건사분석인 상보적 로그-로그함수(Complementary Log-log Function)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Alison, 1982; Henderson, 1999). <표 3>은 사건사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빗회귀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3.5.2 민감도분석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사회적 근접성의 경우 초점대학의 순위를 기준으로 ± 3 과 ± 7 의 범위를 설정한 뒤, 이 범위에 속한 대학들 중 입학사정관제의 기채택자들의 비율을 구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4>에서는 이 분석결과들이 요약되고 있으며 기존의 회귀분석과 동일한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태학적 근접성의 경우 초점대학의 적소와 50%이상, 60%이상의 중복값을 가진 대학들을 경쟁집단으로 규명하고, 이들 중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한 대학들의 비율을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한 <표 5>에서도 기존의 회귀분석과 동일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표 3〉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사건사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채택대학 비율	7.055*** (1.748)	4.466* (1.892)	-2.704 (2.828)	-4.272 (2.910)	-5.691 (2.986)
전체 대학 수	0.119 (0.092)	0.016 (0.098)	-0.104 (0.108)	-0.181 (0.113)	-0.168 (0.112)
전체 수험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공립대학	0.159 (0.546)	0.025 (0.550)	0.081 (0.594)	-0.063 (0.594)	-0.065 (0.600)
대학연령	0.065** (0.023)	0.070** (0.023)	0.061* (0.025)	0.066** (0.025)	0.061* (0.025)
대학규모(로그)	0.589*** (0.167)	0.539** (0.166)	0.368* (0.186)	0.341 (0.185)	0.458* (0.190)
재정의존도	8.480** (3.090)	9.439** (3.187)	8.993** (3.344)	10.013** (3.436)	10.412** (3.468)
대학순위점수	0.031** (0.010)	-0.004 (0.013)	0.029** (0.011)	-0.003 (0.013)	-0.008 (0.013)
지역 채택대학 수	3.495*** (0.809)	2.893*** (0.822)	2.352** (0.858)	1.895* (0.865)	1.491 (0.862)
사회적 근접성		2.454*** (0.587)		2.302*** (0.608)	7.133*** (1.744)
생태학적 근접성			4.757*** (1.134)	4.360*** (1.146)	5.231*** (1.214)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					-5.668** (1.895)
상수	-27.595* (11.545)	2.530 (13.783)	32.095 (18.170)	55.587** (19.817)	53.212** (19.808)
Chi-squared	147.580	133.960	140.750	140.750	142.780

주) 지역더미는 생략됨, *p < .05, **p < .01, ***p < .001

3.6 추가분석 결과

3.6.1 수도권대학

본 연구는 대학들을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오늘날 국내 대학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져 지역

적으로 분절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대학들의 밀도가 매우 높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소수의 거점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사립대학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국내 대학들의 구조적인

〈표 4〉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지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지위±3	지위±7	지위±3	지위±7	지위±3	지위±7	지위±3	지위±7	지위±3	지위±7
전체 채택대학 비율	5.863*** (1.415)	5.863*** (1.415)	3.898** (1.476)	3.852* (1.516)	-2.127 (2.241)	-2.127 (2.241)	-3.240 (2.262)	-3.352 (2.296)	-3.724 (2.298)	-4.005 (2.343)
전체 대학 수	0.103 (0.074)	0.103 (0.074)	0.031 (0.077)	0.021 (0.078)	-0.084 (0.087)	-0.084 (0.087)	-0.134 (0.089)	-0.145 (0.091)	-0.126 (0.089)	-0.134 (0.091)
전체 수험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공립대학	0.045 (0.428)	0.045 (0.428)	-0.061 (0.419)	-0.044 (0.431)	0.004 (0.470)	0.004 (0.470)	-0.101 (0.457)	-0.093 (0.470)	-0.111 (0.462)	-0.109 (0.479)
대학연령	0.056** (0.018)	0.056** (0.018)	0.057*** (0.017)	0.059*** (0.018)	0.052** (0.019)	0.052** (0.019)	0.053** (0.018)	0.055** (0.019)	0.051** (0.019)	0.053** (0.019)
대학규모(로그)	0.411*** (0.123)	0.411*** (0.123)	0.376** (0.120)	0.381** (0.123)	0.239 (0.140)	0.239 (0.140)	0.222 (0.135)	0.227 (0.139)	0.271 (0.140)	0.291* (0.144)
재정의존도	6.815** (2.443)	6.815** (2.443)	7.209** (2.450)	7.582** (2.493)	7.221** (2.643)	7.221** (2.643)	7.631** (2.646)	8.041** (2.695)	8.016** (2.682)	8.606** (2.753)
대학순위점수	0.027** (0.008)	0.027** (0.008)	0.001 (0.009)	0.001 (0.011)	0.026** (0.009)	0.026** (0.009)	0.001 (0.010)	0.003 (0.011)	-0.001 (0.010)	-0.002 (0.011)
지역 채택대학 수	2.613*** (0.590)	2.613*** (0.590)	2.130*** (0.595)	2.228*** (0.602)	1.816** (0.634)	1.816** (0.634)	1.457* (0.633)	1.550* (0.640)	1.349* (0.639)	1.367* (0.648)
사회적 근접성			1.812*** (0.394)	1.750*** (0.494)			1.723*** (0.414)	1.574** (0.520)	3.721** (1.229)	4.475** (1.395)
생태학적 근접성					3.854*** (0.863)	3.854*** (0.863)	3.469*** (0.859)	3.550*** (0.869)	3.777*** (0.886)	3.970*** (0.904)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									-2.386* (1.376)	-3.354* (1.492)
상수	-20.393* (9.040)	-20.393* (9.040)	1.265 (10.166)	1.221 (10.852)	29.903* (14.448)	29.903* (14.448)	45.945** (15.186)	45.741** (15.628)	44.533** (15.227)	44.251** (15.706)
Log-Likelihood	-371.81	-371.81	-360.88	-365.37	-359.01	-359.01	-350.11	-354.34	-348.59	-351.80
관측치	1,260	1,260	1,260	1,260	1,246	1,246	1,246	1,246	1,246	1,246

주) 연도·지역더미는 생략됨, *p < .05, **p < .01, ***p < .001

특성상 크게 두드러지는 두 지역 간의 차이점은, 수도권에는 대부분의 상위권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간에 치열한 지위경쟁이 일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학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대학들은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지방대학들은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6〉의 [모형 1]은 서울·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근접성 변수의 β 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5.99,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4.41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학적 근접성 변수의 β 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3.41,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3.74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

〈표 5〉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적소)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적소50	적소60	적소50	적소60	적소50	적소60	적소50	적소60	적소50	적소60
전체 채택대학 비율	5.863*** (1.415)	5.863*** (1.415)	3.680* (1.502)	3.680* (1.502)	-4.426 (2.380)	-4.414 (2.372)	-4.665 (2.384)	-5.184* (2.397)	-6.887** (2.522)	-6.607** (2.486)
전체 대학 수	0.103 (0.074)	0.103 (0.074)	0.013 (0.078)	0.013 (0.078)	-0.178 (0.093)	-0.144 (0.090)	-0.207* (0.095)	-0.194* (0.093)	-0.214* (0.096)	-0.195* (0.093)
전체 수험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공립대학	0.045 (0.428)	0.045 (0.428)	-0.057 (0.432)	-0.057 (0.432)	-0.006 (0.488)	0.015 (0.484)	-0.091 (0.483)	-0.085 (0.481)	-0.111 (0.504)	-0.102 (0.494)
대학연령	0.056** (0.018)	0.056** (0.018)	0.060*** (0.018)	0.060*** (0.018)	0.063** (0.019)	0.057** (0.019)	0.066*** (0.019)	0.061** (0.019)	0.063*** (0.020)	0.058** (0.020)
대학규모(로그)	0.411*** (0.123)	0.411*** (0.123)	0.378** (0.123)	0.378** (0.123)	0.116 (0.149)	0.130 (0.147)	0.134 (0.147)	0.137 (0.145)	0.246 (0.155)	0.243 (0.152)
재정의존도	6.815** (2.443)	6.815** (2.443)	7.628** (2.504)	7.628** (2.504)	7.938** (2.802)	7.960** (2.786)	8.522** (2.825)	8.634** (2.825)	9.855*** (2.966)	9.527** (2.907)
대학순위점수	0.027** (0.008)	0.027** (0.008)	-0.002 (0.010)	-0.002 (0.010)	0.023* (0.009)	0.026** (0.009)	0.002 (0.011)	0.001 (0.011)	-0.005 (0.011)	-0.005 (0.011)
지역 채택대학 수	2.613*** (0.590)	2.613*** (0.590)	2.215*** (0.601)	2.215*** (0.601)	1.128 (0.671)	1.370* (0.655)	1.053 (0.670)	1.179 (0.658)	0.894 (0.685)	1.031 (0.669)
사회적 근접성			1.953*** (0.451)	1.953*** (0.451)			1.465** (0.485)	1.631*** (0.482)	5.967*** (1.328)	5.495*** (1.342)
생태학적 근접성					6.580*** (1.230)	5.811*** (1.079)	5.678*** (1.252)	5.206*** (1.088)	6.765*** (1.312)	5.886*** (1.127)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									-5.877*** (1.594)	-4.748** (1.523)
상수	-20.393* (9.040)	-20.393* (9.040)	4.169 (10.677)	4.169 (10.677)	58.267*** (17.300)	51.402** (16.171)	66.183*** (17.678)	64.782*** (16.940)	69.035*** (17.966)	64.995*** (17.055)
Log-Likelihood	-371.81	-371.81	-362.07	-362.07	-354.57	-354.30	-349.96	-348.45	-342.64	-343.41
관측치	1,260	1,260	1,260	1,260	1,255	1,254	1,255	1,254	1,255	1,254

주) 연도지역더미는 생략됨. *p < .05, **p < .01, ***p < .001

은 지방대학들보다 수도권대학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은 수도권대학들보다 지방대학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이 결과를 통해 지위경쟁은 수도권대학들에게서 보다 선호되는 반면, 시장경쟁은 지방대학들에게서 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수도권대	지방대	특성화대	일반대
전체 채택대학 비율	0.008 (4.415)	-6.019* (2.769)	-12.476* (6.221)	-3.857 (2.473)
전체 대학 수	0.085 (0.171)	-0.264* (0.110)	-0.395 (0.241)	-0.134 (0.096)
전체 수험생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공립대학	-0.021 (1.155)	-0.119 (0.539)	3.784* (1.923)	-0.109 (0.498)
대학연령	0.093* (0.046)	0.026 (0.021)	0.121 (0.068)	0.049* (0.021)
대학규모(로그)	0.323 (0.306)	0.474** (0.154)	-0.498 (0.394)	0.359* (0.157)
재정의존도	10.097* (4.616)	5.693 (3.494)	2.562 (7.028)	8.756** (2.924)
대학순위점수	0.020 (0.022)	-0.012 (0.014)	0.015 (0.029)	-0.006 (0.011)
지역 채택대학 수	1.082 (1.458)	2.383*** (0.633)	-0.211 (1.899)	1.094 (0.671)
사회적 근접성	5.992* (2.982)	4.407** (1.588)	3.970 (3.545)	5.435*** (1.443)
생태학적 근접성	3.409* (1.682)	3.744*** (1.050)	7.522** (2.486)	4.211*** (0.987)
사회적 근접성*생태학적 근접성	-5.503 (3.326)	-2.836 (1.717)	-2.533 (3.864)	-4.155** (1.562)
상수	14.711 (29.066)	64.587*** (18.750)	102.971* (42.568)	43.213** (16.464)
Log-Likelihood	-107.28	-248.31	-71.02	-318.38
관측치	454	792	245	1,154

주) 연도더미는 생략됨, *p < .05, **p < .01, ***p < .001

3.6.2 특성화대학

본 연구는 대학들을 특성화 여부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성화대학은 '소재지역의 특수성과 각

대학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개 전공계열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들을 의미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2014년 기준 특성화대학의 종류에는 공학계 대학을 비롯한 해양학계 대학과 항공학계

대학들 등이 있는데, 본 연구는 이 대학들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의 [모형 2]는 이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일반대학들의 자료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가설들이 유의미하게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특성화대학들의 자료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성화대학들은 주로 유사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경쟁대학들의 의사결정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은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특성화대학들이 유사한 지위수준을 가진 대학들의 의사결정을 참고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받아들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특성화 대학들은 일반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소폭이 좁아서 경쟁의 강도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전공들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적소중복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시장경쟁 논리가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특성화대학의 특성상 존재목적이 일반대학의 그것에 비해 뚜렷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를 통한 지위경쟁이 큰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제도적·재정적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에 조직근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조직

이 각각의 조직근접성을 고려하여 어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조직이 두 유형의 조직근접성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논의한다. 본 연구의 논의에 따르면, 조직은 자신과 사회적으로 유사한 동료조직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인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근접성이 높은 조직들이 신규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조직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조직은 생태학적 근접성이 높은 경쟁자들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유사전략을 추구하는데, 이는 경쟁의 강도가 높을수록 차별화전략이 갖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쟁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면 조직은 이를 모방함으로써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유형의 조직근접성의 영향들을 조직이 동시에 받게 될 경우, 본 연구는 조직이 둘 중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근접성을 보다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이 강하고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이 약하다면, 조직은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 신규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 간에 경쟁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각의 조직근접성들을 중심으로 신규제도가 확산될 때 강화되는 경쟁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적 근접성의 경우 조직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위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인 반면, 생태학적 근접성의 경우는 성과개선과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지배적인 경쟁논리가 다른 만큼 그 수단도 상이한데, 전자의 경우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면 후자의 경우는 유사전략을 통해 경쟁자들과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경쟁의 목적과 수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 조직이 두 조직근접성의 영향들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목적들과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조직에게 주어진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정보처리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이질적인 경쟁논리들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 조직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근접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이 비대칭적일 경우, 조직은 영향력이 강한 조직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제도를 채택하게 되지만, 두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이 모두 강하게 주어질 경우에는 내부의 경쟁논리들이 충돌한 결과로 조직의 관심과 자원, 시간 등의 투입이 분산되기 때문에 각각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 논의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들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에 대한 8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프로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가설들이 강하게 지지되었는데, 초점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은 지위수준이 유사한 동료대학들의 의사결정과 개설전공들이 겹치는 경쟁대학들의 의사결정의 영향을 각각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집단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는 대학들이 증가할수록 초점대학 역시 이 제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이 같은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초점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채택이 동료대학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경쟁대학들의 영향이 적을 때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경쟁대학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동료대학들의 영향이 적을 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점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주목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집단의 영향이 모두 강할 경우 초점대학이 각각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같은 실증분석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는 국내 대학들의 몇 가지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하부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대학들을 그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수도권대학들은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지방대학들은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수도권의 경우 대학들의 밀도가 높고 상위권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어 지위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반면, 지방의 경우 소수의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중소 사립대학들이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국지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시장경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들을 특성화 여부에 따라 특성화대학과 일반대학으로 분리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대학들은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는 특성화대학들이 소수의 전공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적소중복의 가능성이 일반대학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대학 내부의 시장경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성화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의 제도적·재정적 연결관계는 정당성 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기 때문에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러 조직근접성 논의들을 통합하는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조직이 근접한 다른 조직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기술이나 관행, 제도 등을 받아들인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직들의 의해 어떤 동기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논의해 왔다 (Baum and Haveman, 1997; Bothner, 2003; Briscoe, Gupta and Anner, 2015; Lieberman and Asaba, 2006; Singh and Marx, 2013).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져온 조직근접성 개념을 그 유형에 따라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조직근접성에 기반하여 조직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신규제도를 채택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조직이 여러 조직근접성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논의하고 이를 실증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Park and Podolny(2000)의 국지화된 경쟁모형을 적용하여 규제산업에서의 신규제도 채택의 복잡한 양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신규제도의 확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메커니즘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논의되어왔으나 (장덕호, 2009; 주회정, 2014),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확산 현상을 설명한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즉, 입학사정관제의 확산은 사회적 근접성이 높은 동료대학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생태학적 근접성이 높은 경쟁대학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주

장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신규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먼저 대학들을 사회적 근접성과 생태학적 근접성에 따라 복수의 집단들로 범주화한 뒤, 각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채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신규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지위집단과 경쟁집단의 제도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채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도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보다는 각 집단의 제도화 수준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적대학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확산정책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대학들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동료대학들의 의사결정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방대학들은 개설전공의 종류가 유사한 경쟁대학들의 의사결정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특성화대학들은 동료대학들보다는 경쟁대학들의 의사결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대학들의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확산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확산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요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들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내부 역학관계의 결과로 이해하고, 경쟁적인 제도적 논리들의 상호작용이나 상충되는 이해를 가진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정해진다고 본다(Briscoe, Gupta and Anner, 2015; Kim, Shin, Oh and Jeong, 2007). 이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은 이 제도에 대한 조직 내부의 지배논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직근접성의

영향도 어떤 이해를 가진 집단이 조직 내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조직의 지위개선을 추구하는 집단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반대로 조직의 효율화와 경쟁력의 확보를 추구하는 집단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사회적 근접성의 영향은 약화되고 생태학적 근접성의 영향은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조직 내부에 어떤 역학관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조직의 신규제도 채택과 조직근접성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래연구에서는 이 같은 조직의 내부요인들을 반영한 조직근접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 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질적자료의 수집을 통해 여러 내부요인들을 규명한 다음, 이 요인들이 조직근접성의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신규제도의 확산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차별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확산에 어떤 행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 제도의 확산은 영향력 있는 조직이나 문지기(gatekeeper), 관료 등과 같은 핵심 행위자들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된다(Burt, 2004; DiMaggio and Powell, 1983; Tolbert and Zucker, 1983). 이 관점에서 볼 때 동료조직들과 경쟁조직들의 신규제도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이 핵심 행위자와 조직의 관계에 따라 신규제도를 받아들이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연구에서는 동료 집단과 경쟁조직들 사이에서 신규제도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을 규명하고, 조직이 이 행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신규제도의 채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힐 필요

가 있다. 특히 사회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에 위치한 조직들과 약한 연결관계(weak tie)를 가진 조직들을 규명해낸다면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직의 적소를 부분적으로만 측정하고 있다. 적소는 다차원적인 자원공간으로서(Hannan and Freeman, 1977), 조직은 하나 이상의 여러 자원공간들에서 활동한다. 이 관점에서 적소는 아웃풋과 인풋, 소비자나 종업원, 규제 환경과 정체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Hannan, Carroll and Polos, 2003). 본 연구의 경우 대학의 적소를 전공으로 정의하였지만, 이외에도 대학의 아웃풋 관점에서 취업과 연구 실적을 적소로 볼 수도 있다. 또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교직원과 전임교원을 적소로 볼 수 있으며, 대학의 독특한 특성이나 정체성을 적소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대학의 적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의 상류시장 관점에서 전공만을 적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대학의 입학제도 채택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류 입시시장의 관점에서 적소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측정도구와 그 개념 간에 간극이 있다는 점에선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연구는 적소의 개념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학이 속한 다양한 자원공간들을 규명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여러 적소변수들을 개발한 다음, 이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구하여 조직근접성을 측정한다면 적소의 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치원(1999),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 개혁," *역사비평*, 48, 95-109.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신현석(2013), "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9(1), 165-198.
- 이동연(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 12-38.
- 장덕호(2009), "대학입학사정관제 제도화 과정 분석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적용," *교육행정학연구*, 27(3), 121-144.
- 정대훈·신동엽(2016), "조직학습과 지위: 한국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 2007-2013년," *경영학연구*, 45(5), 1623-1644.
- 주희정(2014), "고등교육 정책확산의 패턴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2(3), 209-233.
- Abrahamson, E., and L. Rosenkopf(1993), "Institutional and Competitive Bandwagons: Using Mathematical Modeling as a Tool to Explore Innovation Diffu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3), 487-517.
- Allison, P. D.(1982), "Discrete-Time Methods for the Analysis of Event Historie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61-98.
- Audia, P. G., and H. R. Greve(2006), "Less Likely to Fail: Low Performance, Firm Size, and Factory Expansion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Management Science*, 52(1), 83-94.
- Audretsch, D. B., and P. E. Stephan(1996), "Company-scientist Locational Links: The Case of Biotechnolog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3), 641-652.
- Baum, J. A., and J. V. Singh(1994), "Organizational Niches and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2), 346-380.
- Baum, J. A., and H. A. Haveman(1997), "Love thy Neighbor? Differentiation and Agglomeration in the Manhattan Hotel Industry, 1898-1990,"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04-338.
- Baum, J. A. C., S. X. Li, and J. M. Usher(2000), "Making the Next Move: How Experiential and Vicarious Learning Shape the Locations of Chains' Acquisi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5(4): 766-801.
- Bhattacharya, H., and S. Dugar(2014), "Partnership Formation: The Role of Social Status," *Management Science*, 60(5), 1130-1147.
- Bingham, C. B., and J. P. Davis(2012), "Learning Sequences: Their Existence, Effect, and Evolu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5(3), 611-641.
- Bitektine, A., and P. Haack(2015), "The "Macro" and the "Micro" of Legitimacy: Toward a Multilevel Theory of the Legitimacy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0(1), 49-75.
- Bothner, M. S.(2003), "Competition and Social Influence: The Diffusion of the Sixth-Generation Processor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6), 1175-1210.
- Bothner, M. S., Y. K. Kim, and E. B. Smith(2012), "How does Status Affect Performance? Status as an Asset vs. Status as a Liability in the PGA and NASCAR," *Organization Science*, 23(2), 416-433.
- Box-Steffensmeier, J. M., and B. S. Jones(2004), *Event History Modeling: A Guide for Social*

-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scoe, F., A. Gupta, and M. S. Anner(2015), "Social Activism and Practice Diffusion How Activist Tactics Affect Non-targeted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0(2), 1-33.
- Burt, R. S.(1976), "Positions in Networks," *Social Forces*, 55(1), 93-122.
- Burt, R. S.(1987), "Social Contagion and Innovation: Cohesion versus Structural Equiva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287-1335.
- Burt, R. S.(2004), "Structural Holes and Good Ide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2), 349-399.
- Chen, Y. R., R. S. Peterson, D. J. Phillips, J. M. Podolny and C. L. Ridgeway(201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Bringing Status to the Table-Attaining, Maintaining, and Experiencing Status in Organizations and Markets," *Organization Science*, 23(2), 299-307.
- Chung, S., H. Singh and K. Lee(2000), "Complementarity, Status Similarity and Social Capital as Drivers of Alliance Form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1), 1-22.
- Cyert, R. M., and J. G. March(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NY: Englewood Cliffs.
- Deephouse, D. L.(1999), "To be Different, or to be the Same? It's a Question (and Theory) of Strategic Bal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47-166.
- Devinney, T. M.(2009), "Is the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 Myth?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3(2), 44-56.
- DiMaggio, P., and W. W. Powell(1983), "The Iron Cage Revisited: Collective Rationality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Duncan, G. J., K. A. Magnuson and J. Ludwig (2004), "The Endogeneity Problem in Developmental Studi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1-2), 59-80.
- Florida, R. L.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Freeman, J., G. R. Carroll and M. T. Hannan(1983), "The Liability of Newness: Age Dependence in Organizational Death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5), 692-710.
- Funk, R. J.(2014), "Making the Most of Where You Are: Geography, Networks,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1), 193-222.
- Gittelman, M.(2007), "Does Geography Matter for Science-based Firms?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Geography of Research and Patenting in Biotechnology," *Organization Science*, 18(4), 724-741.
- Garcia Pont, C., and N. Nohria(2002), "Local versus Global Mimeticism: The Dynamics of Alliance Formation in the Automobile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4), 307-321.
- Graffin, S. D., J. Bundy, J. F. Porac, J. B. Wade and D. P. Quinn(2013), "Falls from Grace and the Hazards of High Status The 2009 British MP Expense Scandal and Its Impact on Parliamentary Elit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8(3), 313-345.
- Granovetter, M.(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Greve, H. R. (2008), "A Behavioral Theory of Firm Growth: Sequential Attention to Size and Performance Goa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1(3), 476-494.
- Hannan, M. T., and J. Freeman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29-964.
- Hannan, M. T., and J. Freeman (1984), "Structural Inertia and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9-164.
- Hannan, M. T., G. R. Carroll, and L. Pólos (2003), "The Organizational Niche," *Sociological Theory*, 21(4), 309-340.
- Henderson, A. D. (1999), "Firm Strategy and Age Dependence: A Contingent View of the Liabilities of Newness, Adolescence, and Obsolesce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2), 281-314.
- Ho, V. T., and L. L. Levesque (2005),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nd Substitutes): Social Referents and Influence in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Organization Science*, 16(3), 275-289.
- Ingram, P., and P. W. Roberts (2000), "Friendships among Competitors in the Sydney Hotel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2), 387-423.
- Kim, T. Y., D. Shin, H. Oh, Y. C. Jeong (2007), "Inside the Iron Cage: Organizational Political Dynam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Presidential Selection Systems in Korean Universities, 1985-2002,"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2), 286-323.
- Kim, T. Y., D. Shin, and Y. C. Jeong (2016), "Inside the 'Hybrid' Iron Cage: Political Origins of Hybridization," *Organization Science*, 27(2), 428-445.
- Krishnan, R., and R. K. Kozhikode (2015), "Status and Corporate Illegality: Illegal Loan Recovery Practices of Commercial Banks in India,"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5), 1287-1312.
- Lawrence, B. S. (2006), "Organizational Reference Groups: A Missing Perspective on Social Context," *Organization Science*, 17(1), 80-100.
- Lieberman, M. B., and S. Asaba (2006), "Why do Firms Imitate Each Oth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2), 366-385.
- Lincoln, J. R., and J. Miller (1979), "Work and Friendship Ties in Organiza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ion Network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2), 181-199.
- Lounsbury, M. (2002),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nd Status Mobility: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Field of Fin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1), 255-266.
- McPherson, J. M., and L. Smith-Lovin (1987), "Homophily in Voluntary Organizations: Status Distance and the Composition of Face-to-face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70-379.
- Meyer, J. W., and B. Rowan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Monge, P. R., L. W. Rothman, E. M. Eisenberg, K. I. Miller and K. K. Kirste (1985), "The Dynamics of Organizational Proximity," *Management Science*, 31(9), 1129-1141.
- Nachum, L., S. Zaheer and S. Gross (2008), "Does

- It Matter Where Countries Are? Proximity to Knowledge, Markets and Resources, and MNE Location Choices," *Management Science*, 54(7), 1252-1265.
- Ocasio, W.(1997), "Towards an Attention-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187-206.
- Owen-Smith, J., and W. W. Powell(2004), "Knowledge Networks as Channels and Conduits: The Effects of Spillovers in the Boston Biotechnology Community," *Organization Science*, 15(1), 5-21.
- Park, D. Y., and J. M. Podolny(2000), "The Competitive Dynamics of Status and Niche Width: US Investment Banking, 1920-1949,"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9(3), 377-414.
- Phillips, D. J., and E. W. Zuckerman(2001), "Middle-Status Conformity: Theoretical Restatement and Empirical Demonstration in Two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2), 379-429.
- Phillips, K. W., N. P. Rothbard and T. L. Dumas (2009), "To Disclose or Not to Disclose? Status Distance and Self-disclosure in Diverse Environmen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4(4), 710-732.
- Piazza, A., and J. Jourdan(2017), "When the Dust Settles: The Consequences of Scandals for Organizational Competi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Forthcoming.
- Podolny, J. M.(1993), "A Status-based Model of Market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4), 829-872.
- Podolny, J. M.(1994), "Market Uncertainty and the Social Character of Economic Exchang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9(3), 458-483.
- Pouder, R., and C. H. S. John(1996), "Hot Spots and Blind Spots: Geographical Clusters of Firms and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1192-1225.
- Rindova, V. P., I. O. Williamson, A. P. Petkova, and J. M. Sever(2005), "Being Good or Being Know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Reput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6), 1033-1049.
- Salancik, G. R., and J. Pfeffer(1978),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3(2), 224-253.
- Saxenian, A.(1991), "The Origins and Dynamics of Production Networks in Silicon Valley," *Research Policy*, 20(5), 423-437.
- Saxenian, A.(1996), *Regional advanta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pilov, A. V., and S. X. Li(2008), "Can You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Structural Holes' Influence on Status Accumulation and Market Performance in Collaborative Network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3(1), 73-108.
- Singh, J., and M. Marx(2013), "Geographic Constraints on Knowledge Spillovers: Political Borders vs. Spatial Proximity," *Management Science*, 59(9), 2056-2078.
- Srinivasan, R., P. Haunschild, and R. Grewal(2007), "Vicarious Learning in New Product Introductions in the Early Years of a Converging Market," *Management Science*, 53(1), 16.
- Sullivan, B. N., P. Haunschild, and K. Page(2007), "Organizations Non Gratae? The Impact of Unethical Corporate Acts on Interorgani-

- zational Networks," *Organization Science*, 18(1), 55-70.
- Tolbert, P. S., and L. G. Zucker(1983), "Institutional Sources of Change in the Form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The Diffusion of Civil Service Reform, 1880-1935,"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1), 22-39.
- Tuma, N. B., and M. T. Hannan(1984), *Social Dynamics: Models and Methods*, FL: Academic Press.
- Uzzi, B.(1996),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Embeddedness for the Economic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The Network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74-698.
- Wang, H., L. Tong, R. Takeuchi, and G. George (201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Overview and New Research Directions Thematic Issu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9(2), 534-544.
- Whittington, K. B., J. Owen-Smith and W. W. Powell (2009), "Networks, Propinquity, and Innovation in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90-122.
- Wholey, D. R., and J. W. Huonker(1993), "Effects of Generalism and Niche Overlap on Network Linkages among Youth Service Agenc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2), 349-371.
- Zhao, W., and X. Zhou(2011), "Status Inconsistency and Product Valuation in the California Wine Market," *Organization Science*, 22(6), 1435-1448.

Organizational Proximity and the Adoption of a New Practice

Daehun Chung* · DongYoub Shin**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organizational proximity affects the adoption of a new practice.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a proximity between actors may facilitate interactions, networking, and innovation. Referring to social learning and network perspectives, some researchers suggest that a social proximity between actors becomes closer when the actors belong to same social class. From the market perspective, others argue that actors' market niches are overlap when the actors deal with a similar customer group, and that this overlap is similar in concept to a ecological proximity. However,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how two types of proximity interact with each other. Therefore, our goal is to suggest a theoretical framework considering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cial proximity and ecological proximity. Specifically, we discuss how each proximity affects the adoption of a new practice and how organization makes a decision when considering two type of proximity simultaneously. To verify above discussions, we conducted a probit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of Korean universities during 2007-2014, and all hypotheses are strongly supported. The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Organizational Proximity, Status, Niche, Korean Universities, Admission Officer Syste

* Yonsei University,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 Yonsei University, Co-author

- 저자 정대훈은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 연구 관심사는 조직학습, 조직지위, 제도이론 등이다.
- 저자 신동엽은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분야 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연구 관심사는 제도이론, 사회운동, 사회네트워크, 경영패러다임 변화 등이며, 경영학연구와 인사조직연구를 비롯한 국내 학술지와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Organization Science, Poetic 등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